

코로나 이후 3040 교회 이탈자,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58%!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가 향후 목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세대는 바로 3040세대이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직장생활과 가사/육아에 지쳐 신앙 약화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영적 침체는 곧 그들의 자녀인 다음세대까지 그 파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신총회교육원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3040 개신교인 신앙의식과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단행본 「한국교회 3040세대 트렌드」를 발간했는데 이번 넘버즈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3040 개신교인의 삶의 만족도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 약화도 심하게 나타나 현장예배를 이탈하는 비율이 32%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회 이탈자 5명 중 3명(58%)는 다시 교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이들을 다시 유입하고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040 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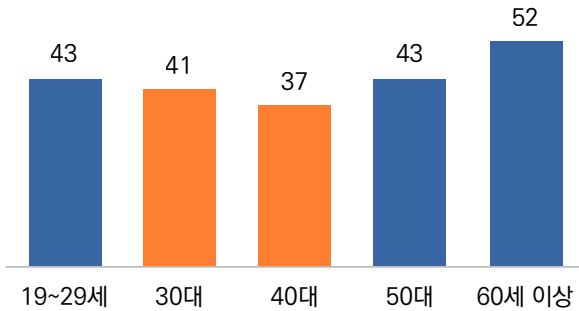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만 30~49세 개신교인 남녀 (코로나19 이전부터 가나안 성도인 자 제외, 코로나19 이후 교회 이탈자 포함)
표본 규모	총 7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2015년 통계청 인구 센서스 기준)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7\%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9월 8일 ~ 9월 12일 (5일간)
조사 주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교육원
조사 수행 기관	조사 진행 : (주)지앤컴리서치 결과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01

[3040세대의 일상과 신앙] 3040세대의 삶의 만족도,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아!

- 3040세대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연령별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30대와 40대의 만족도가 각각 41%, 3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40대를 최저점으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3040세대의 녹록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일상생활 만족도 (개신교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 한국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9.~16.)

*5점 척도

직장/사회생활, 가사/육아로 스트레스 심해!

- '직장/사회생활'과 '가사/육아'로 인한 3040세대의 스트레스 정도는 얼마나 될까? '직장/사회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에 직장인 3명 중 2명 이상(68%)이 '그렇다'고 응답해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지쳐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사 노동 및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의 동의율도 기혼자 절반 이상(57%)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여성(61%)의 육아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 (3040 개신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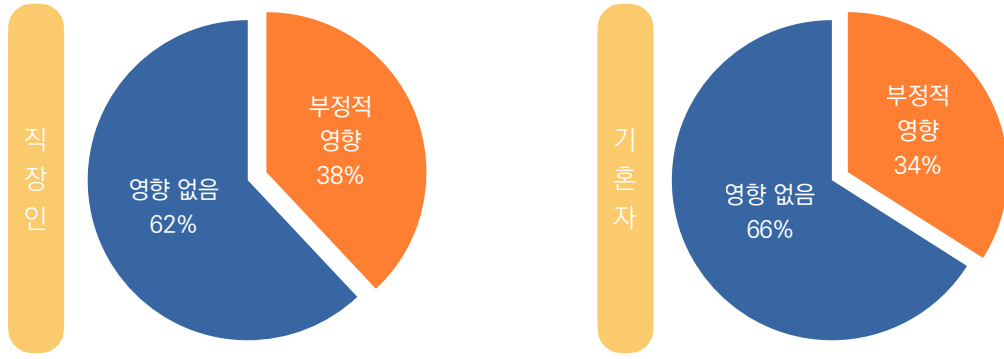


*4점 척도

3명 중 1명 이상, 힘든 직장과 집안일이 신앙 약화 초래!

- 힘든 '직장/사회생활'과 '가사 노동/육아'가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그 결과, 3040세대 3명 중 1명 이상이 '직장 생활'(38%)과 '가사/육아'(34%)가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오는 피로와 문제가 결국 교회 봉사 활동 소홀, 온라인 예배 전환, 신앙 관심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직장/사회생활/가사/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 (3040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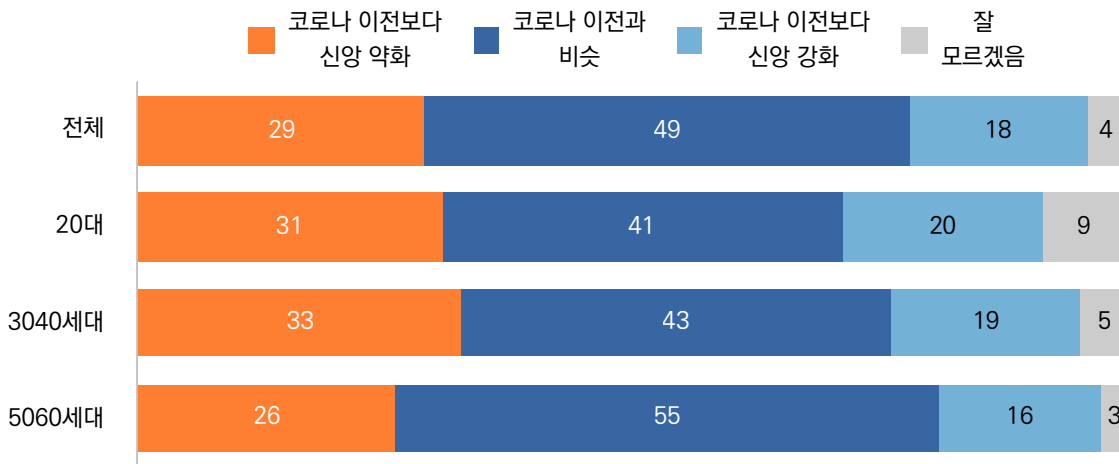


*4점 척도

코로나 이후 신앙 변화, 3040세대의 신앙 약화 심해!

- 이번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신앙 약화'가 '신앙 강화' 응답보다 많은 가운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 약화' 응답이 전 세대 중 3040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40세대 개신교인 3명 중 1명이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 수준이 떨어진 셈이다.

[그림] 코로나 동안 신앙 수준 변화 (개신교인,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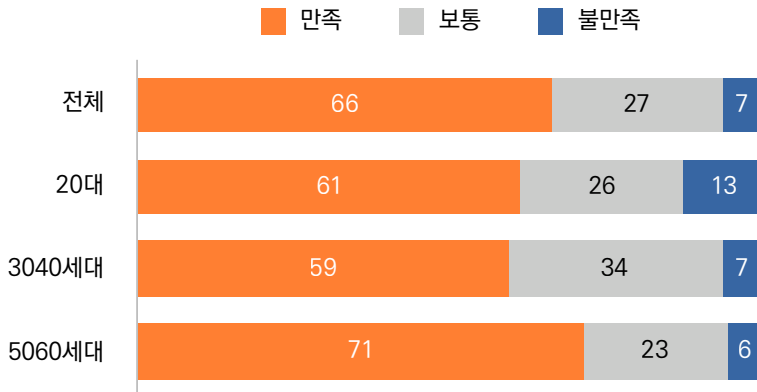
02

[3040세대의 교회 생활]

출석교회 만족도, 3040세대가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 현재 출석 교회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3040세대가 출석 교회에 만족(매우+약간)하는 비율은 59%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 만족도*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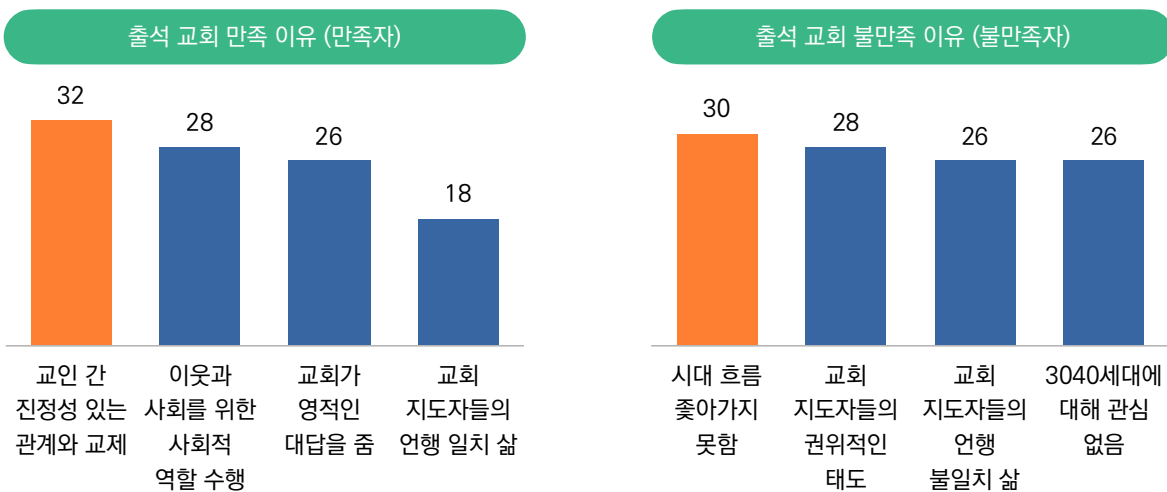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제5차 추적조사), 2023.04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5점 척도

교회 불만족 이유, 시대적으로 뒤처짐과 권위주의!

- 출석 교회에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를 물었다. 우선 출석 교회 만족 이유로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32%)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28%)이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다.
-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함’(30%),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28%),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삶’(26%) 등을 응답해 정체되어 있는 교회 문화와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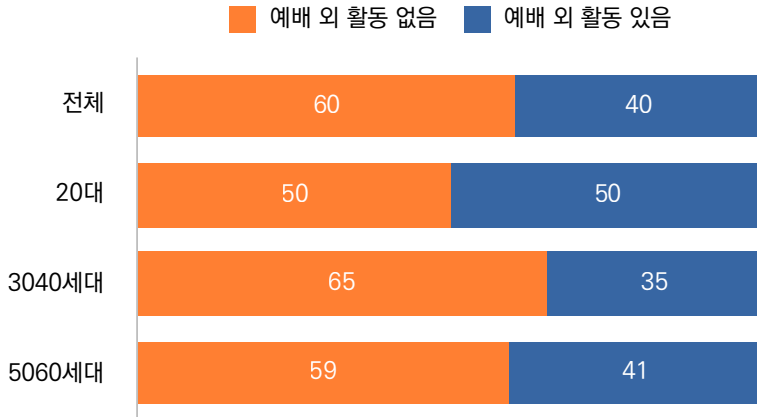
[그림] 출석 교회 만족 vs 불만족 이유 (3040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4위, %)



주일예배 외 다른 활동하지 않는 비율, 3040세대가 가장 높아!

- 주일 예배 외 다른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예배 외 활동이 없는 경우'는 전체 출석 교인 기준 60%였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65%로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주일 예배 외 다른 활동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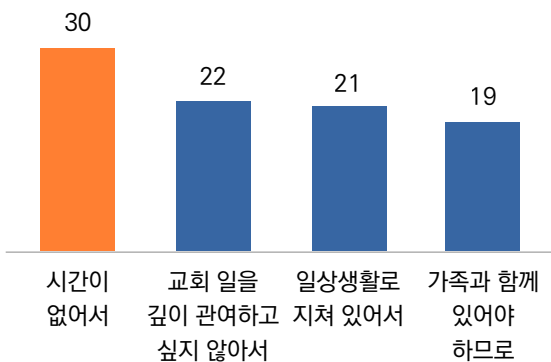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제5차 추적조사)', 2023.04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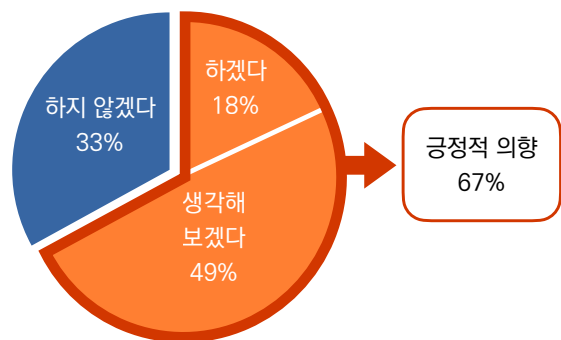
교회 비활동자 3명 중 2명, 권유받으면 활동 가능성 있어!

- 교회에서 예배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3040세대 성도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시간이 없어서' 30%,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22%, '일상생활로 지쳐 있어서' 2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마디로 지치고 피곤하고 귀찮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교회의 활동에 대해 참여를 권유받는다면 의향이 있을까? 교회 봉사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49%)이 '생각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고, '하겠다'도 18%로 나타나 3명 중 2명(67%)은 긍정적 의향을 내비쳤다.

[그림] 교회에서 예배 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교회 비활동 3040,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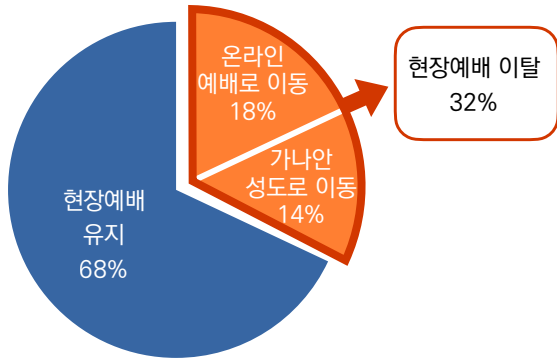
[그림] 교회 봉사 요청 시 수락 의향 (교회 비활동 3040)



3040세대 3명 중 1명, 코로나 이후 현장예배 이탈!

- 3040세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현장예배 여부를 묻은 결과, '현재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다' 68%, '온라인 예배로 이동'이 18%, '가나안 성도로 이동' 1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예배 이탈자는 모두 32%로 3명 중 1명에 달했다.

[그림] 코로나 이후 3040세대의 현장예배 이탈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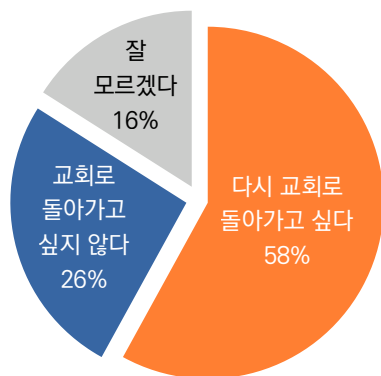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부터 현장예배 안 드린 자 제외

코로나 이후 3040 교회 이탈자,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58%!

- 이렇게 현장예배를 이탈한 교인의 복귀 가능성은 어떠한가? 코로나 이후 교회를 이탈한 30~40대를 대상으로 교회에 다시 복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인 58%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들을 교회로 재유입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권유와 함께 신앙적 필요를 채워줄 소그룹,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 교회에 다시 복귀할 의향* (3040 코로나 이후 교회 이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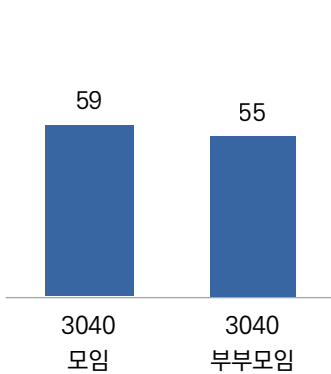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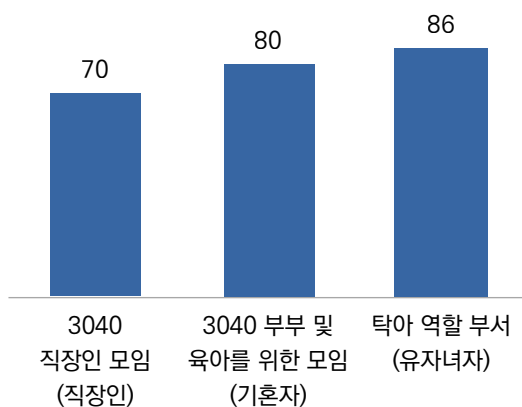
3040세대, “우리를 위해 교회에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

- 앞서 직장/사회생활과 가사/육아는 3040세대의 신앙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3040세대는 그들 연령대의 교회 내 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교회에 해당 모임이 없는 대상자에게 ‘3040세대를 위한 모임’과 ‘3040세대 부부를 위한 모임’의 참여 의향을 물어본 결과 각각 59%, 55%가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 3040 관련 모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직장인을 위한 모임’은 직장인의 70%가, ‘부부 및 육아를 위한 모임’은 기혼자의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같은 처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교회 내 탁아 역할 부서에 대해 대다수(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교회 내 모임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그림] 교회 내 3040 관련 모임 참여 의향
(해당 모임 없는 3040 교회 출석자,
‘매우+약간 있다’ 비율*, %)



[그림] 교회 내 3040 관련 모임 필요성
(3040 교회 출석자 중 해당 조건자,
‘매우+약간 필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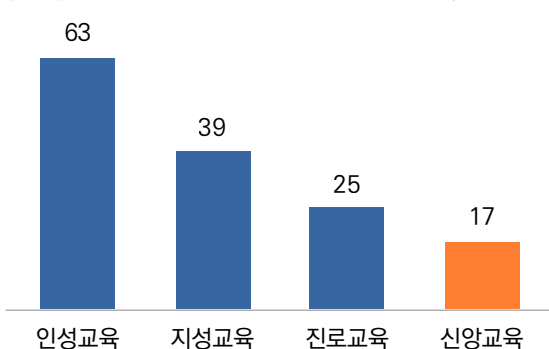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5.12.-31.)
*4점 척도

03

[3040세대의 자녀 신앙교육] 자녀 교육, 다른 영역보다 신앙교육 가장 뒤처져!

- 평소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인성, 지성, 진로, 신앙에 관하여 얼마나 가르치는지를 물었다. ‘자주 가르친다’고 응답한 비율만을 살펴본 결과, ‘인성교육’이 63%, ‘지성교육’ 39%, ‘진로교육’ 25%, ‘신앙교육’ 17% 등의 순이었다. 자녀에게 예의범절, 인간관계 등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교육하는 데 반해 삶 속에서 밀착하여 가르쳐야 하는 ‘신앙교육’은 4가지 영역 중 가장 낮은 17%에 불과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항목별 자녀에게 ‘자주 가르친다’ 비율* (자녀 있는 3040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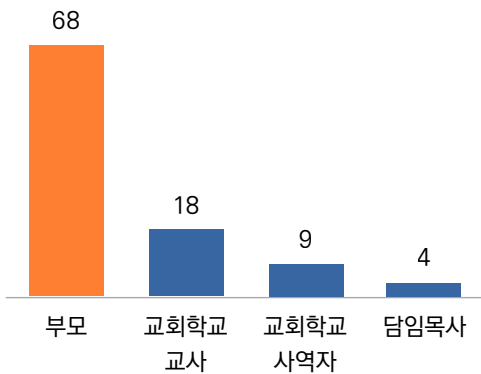


*각각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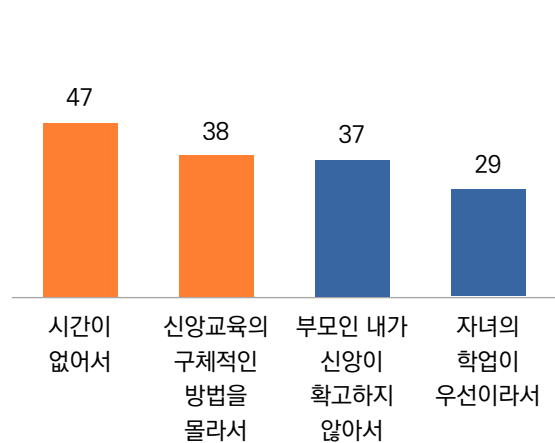
자녀 신앙 교육 못 하는 이유,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몰라'!

- 자녀의 신앙교육을 주도적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에 관해 묻은 결과, '부모'가 68%로 압도적 1위였고, 다음으로 '교회학교 교사' 18%, '교회학교 사역자' 9% 등의 순이었다. 3040 부모들은 신앙에 있어 교회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 그렇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시간이 없어서'를 47%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38%,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37% 등의 순이었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가장 바쁘기도 하지만, 막상 신앙교육을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본인의 신앙도 약한 것이다.

[그림] 자녀에게 신앙을 주로 교육할 주체
(자녀 있는 3040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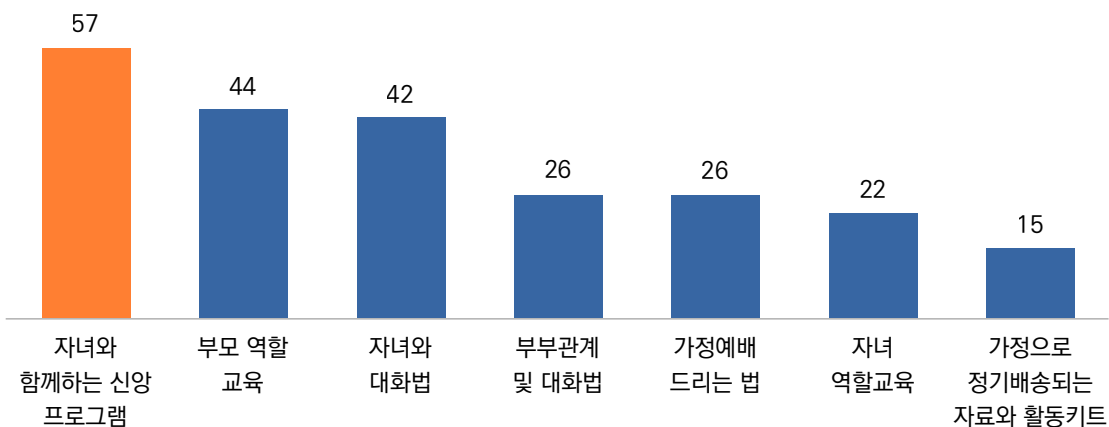
[그림] 자녀 신앙 교육의 걸림돌
(자녀 있는 3040 개신교인, 1+2순위, 상위 4위, %)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 교회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받고 싶은 자료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프로그램'을 꼽은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모 역할 교육' 44%, '자녀와 대화법' 42%, '부부관계 및 대화법' 26% 등의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에 따라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개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자녀 교육을 위해 받고 싶은 자료 (자녀 있는 3040 개신교인, 중복응답, %)



한국 사회에서 3040세대를 끼인 세대라고 말한다. 주로 X세대와 밀레니엄세대에 해당하는 이들은, 위로는 경제적 부흥을 이끈 베이비붐 세대의 주도권에 밀리고 아래로는 Z세대의 분방함에 적응해야 하는, '원세대도 신세대도 아닌 낀세대'이다. 한때 '대한민국 최초의 신인류'로 개인화/개성화 시대를 열었고,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본격적으로 대중 문화 영역에서 '세대 차이'를 일으켰지만, 지금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단한 세대이다.

교회 안에서 3040세대는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삶의 고단함이 신앙에도 고스란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은 사회생활로, 기혼자는 가사 노동 및 육아로 심신의 피로함을 호소했으며, 3명 중 1명 이상이 힘든 직장 생활과 집안일이 신앙 약화를 초래한다고 인정했다. 3040세대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자녀인 다음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자주 하는 비율(17%)은 인성(63%), 지성(39%) 교육보다 한참 낮아 '신앙'이 더 이상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3040의 신앙 약화는 한국교회의 위험한 징조로 감지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화(33%)' 되었다는 응답이 '강화(1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코로나 이후 현장예배를 이탈한 비율도 32%에 달했다. '주일예배 외 교회에서 다른 활동이 없는' 비율도 전 세대 중 3040세대가 가장 높았으며 (65%), 출석교회에 대한 불만족도 역시 3040세대가 가장 높았다.

3040세대의 신앙적 연약함은 이들의 약한 신앙적 수준에 기인한다.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이보다 1년 앞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¹⁾ 이들의 신앙생활 이유로 '구원(23%)'보다 '마음의 평안(34%)'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1단계(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 신앙 수준의 비율은 43%로 5060세대(17%)보다 월등히 높았다. 10년 후 신앙에 대해서는 무려 절반(50%)이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응답해 스스로가 잠재적 가나안 성도임을 예상했다. 약한 신앙은 결과가 되고, 결과는 다시 신앙 약화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다.

희망적인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이탈한 3040세대 교인 5명 중 3명(58%)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응답한 점이다. 아직까지는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3040세대를 위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들이 직접 응답한 출석 교회 만족 이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32%) 마련이다. 치열한 사회에서, 힘든 가정에서 지친 심신을 함께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같은 세대와 관심 영역으로 소그룹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여 힘겨운 일상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 번째(만족 이유)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28%)'이다. 최근 발표된 '주요 사회기관 역할수행' 결과에 따르면²⁾ '종교기관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2%에 불과했다. 교회가 내부의 일에 매몰되어 사회적 역할을 못할수록 공동체적 기여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적인 3040세대의 마음은 교회와 더 멀어질 것이다.

3040세대는 절반 이상이 부모의 영향(모태신앙 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최초의 세대이자 한국교회 교세가 가장 부흥했던 2000년대 초반에 교회학교와 청년의 시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부모가 머리맡에서 했을 기도의 씨앗과 뜨거웠던 부흥의 불씨를 이어받아 3040세대가 미래 한국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1) 한국교회탐구센터, '3040세대의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2022.11.15.

2)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주요 사회기관 역할수행평가', 2024.03.20.